

2. 합격 정보

1차 시험 점수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법	민집법, 상업등기법	부등법, 공탁법
	60	62	72	66
2차 시험 점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소법, 민사사건서류	부등법, 등기신청서류
	54.5	52.25 (21/31.25)	49 (37.25/11.25)	55.25 (35.75/19.5)

3. 합격자 학습 정보

1차 시험 응시 횟수	(2) 회
2차 시험 응시 횟수	(1) 회
총 수험 기간	(23) 개월
1차 시험 준비 방법 (중복 선택 가능)	법단기 인강
2차 시험 준비 방법 (중복 선택 가능)	법단기 인강
법무사단기 수강 이력 여부	있음

4. 합격 후기

- 어떻게 학습을 하셨는지 각 주제 별로 작성해주세요! (글자수 제한 없음)

주제1~5 모두 작성해주세요!

주제1. 수험 시작 동기와 수험 기간

- *어떻게 수험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합격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등*
- 몸이 좋지 않아 1년에 4~5개월 정도는 업무를 할 수 없어, 평범한 직장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업무를 조절할 수 있는 전문직 준비를 생각했습니다. 감평사, 세무사, 법무사 정도를 고민했으나 전공이 법학이라 익숙했던 법무사로 결정했습니다. 수험기간도 몸상태 때문에 중간에 4-5개월의 공백이 있어 큰 의미가 없지만,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한 것은 23년 12월부터입니다.

주제2. 나만의 학습 방법

- *나만의 학습계획 수립법 / 스테디,서브노트 활용법 / 하루 공부계획 등*
- 직장 생활을 하다보니 학원에 다닐 수 없어 모두 법단기 인강으로 공부했습니다. 다른 학원 강의도 들으시는 수험생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학원 강의는 안들어봤습니다. 법단기 강사님들이 충분히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프리패스가 있는데 굳이 다른 학원 강의를 더 들을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결국 공부하는 자기가 해야합니다.

주제3. 과목별 학습 방법 및 고득점 팁 & 과목별 법무사단기 강의 추천

- *과목별 공부법 / 취약 과목 극복법 / 과목별 학습 비중 / 과목별 추천 강좌 등*
- 1차 시험은 따로 기출문제집 구매하실 필요 없이 과목별 강사님들이 2순환 때 쓰시는 객관식 문제집으로만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법무사 기출문제는 물론 다른 시험 문제들도 강사님들이 추가 해놓아서 책을 많이 사실 필요는 없는거 같습니다. 객관식 문제집 여러번 계속 보시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차 때는 차상명 강사님. 한봉상 법무사님 강의가 특히 좋았습니다.

주제4. 시기별 학습 방법 및 고득점 팁 & 시기별 법무사단기 강의 추천

- 월별 또는 시기별(ex.문제풀이과정) 공부 방법 / 시기별 추천 강좌 또는 학습 방법 등
- 25년 8월에 1차 시험을 치고 바로 동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법학과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관련 지식들을 계속 사용해왔기 때문에 답안지 작성이나 과목별 논점들은 모두 익숙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직장병행이다보니 시간이 너무 없어, 동차 준비 기간동안은 강의는 듣지않고 바로 사례집과 법단기 강사님들의 모의고사 자료들을 가지고 실전 연습만 했습니다. 유일하게 학부때도 공부를 해본적이 없어 생소했던 부동산 등기법만 유소정 법무사님 강의를 들었고, 다른 과목 강의는 모의고사 해설 중 잘 모르는 부분만 짚어서 들었습니다. 동차 준비를 시작할 때는 동차 합격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시험 공부를 하며 올해 못붙어도 내년에는 붙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결국 언제 합격하느냐의 문제일 뿐, 어차피 붙을거라 생각하니 편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타학원 모의고사는 봐서 나쁠 건 없지만 안봐도 합격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법단기 강사님들의 강의자료나 모의고사가 워낙 잘 되어있었고, 저도 2개월 밖에 시간이 없으니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생각으로 굳이 다른 학원 자료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민법, 민소법 : 박효근 법무사님 사례집과 강의자료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사례집을 보면 번시나 법행은 물론 사법연수원 문제까지 수록되어있습니다. 박효근 법무사님 사례집과 자료만 잘 봐도 고득점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민법 민소법 거의 모든 논점이 박효근 법무사님 사례집과 모의고사 자료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올해 시험에서 민법 2문의 취소 사유와 이혼사유에 대해 논하라는 문제에서 취소사유를 못보고 이혼사유에 대해서만 답안을 작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10%정도에 해당하는 54.5점이라는 고득점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실수가 없었다면 1% 안쪽인 60점대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등기법 : 유소정 법무사님 강의에서 부등법 답안 작성법에 대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과거 기출들을 분석하며 찾아낸 답안 작성 방법을 유소정 법무사님이 강의에서 여러 번 언급해주시는걸 보며 확신을 갖고 필요없는 부분을 다 버리고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유소정 법무사님의 강의는 2배속으로 들어도 굉장히 잘들려서 마찬가지로 부족한 공부시간 확보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준비해주셨던 모의고사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서 올해 시험의 거의 모든 논점이 유소정 법무사님 모의고사와 자료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첫 시험인 민법에서 문제를 놓친 것처럼 마지막 부등법 1문에서도 Z 토지에 대해 논하는걸 놓쳐서 아예 답안을 작성 못하는 말도 안되는 실수를 했는데요. 그래도 35.75점으로 합격에 충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50점 중, 40점 문제가 최철훈 법무사님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판례와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덕분에 고민 없이 답안을 작성해서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었고, 부족한 형법 점수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주제5. 후배 예비 법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 나의 슬럼프 극복 방법 / 체력 관리법 / 수험생활에 도움이 된 꿀팁 / 수험생에게 하고 싶은 말 등
- 사실 제 수험 경험은 일반적인 수험생 분들과는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음가짐 부분에서만은 꼭 생각해주시고 싶습니다. 저는 위에서 적었다시피 민법과 부등법에서 지금까지 수 많은 시험을 치면서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 어이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 과목 시험들에 영향 받지 않고 그냥 제가 쓸 수 있는 답안들을 계속 써 나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민법에서 친상법 문제가 나와 그 뒤에 시험을 다 망했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적었듯이 저는 민법 논점을 빼먹고도 합격자 평균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고, 부등법은 합격자 평균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시험은 100점을 받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50점만 받아도 합격권, 60점이면 무조건 합격인 시험입니다. 항상 이를 염두하시고 한 두문제 실수했다고 무너지지 마시고 마음을 다시 잡고 쓸 수 있는걸 최대한 써 보세요. 실제로 두 문제나 논점을 누락하고도 합격한 제가 있으니 그냥 믿고 하시면 됩니다. 힘내세요.

* 작성해주신 합격 수기는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예비법무사님들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입니다.